‘관광목포’ 콘텐츠로 더 빛낸다

14억 들여 소삼학도 등에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지역 문화유산 소재 스토리텔링 개발 홍보 활용

목포시가 상징 조형물 설치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목포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열린 관광문화국의 2010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목포시의 대표적 이미지를 활용한 랜드마크 조형물을 제작·설치해 문화관광을 위한 테마상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상징 조형물은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높이 10~12m, 폭 4~5m 규모로 대반동이나 소삼학도 일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안에 포항시의 ‘상생의 손’, 춘천시의 ‘소양강 처녀상’, 예산군의 ‘사과 조형물’, 강릉시의 ‘홍길동 조형물’ 등 타 자치단체의 조형물을 벤치마킹한 뒤 오는 12월 조형물 설치기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공모를 거쳐 3월중 공모작 심사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0년 10월1일 시민의 날에 맞춰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목포시는 또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외부 스토리텔러를 활용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자화해 홍보와 관광상품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오는 10월 국내 유명 관광지 스토리텔링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초 전문가를 모집한 뒤 7월 중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 버스를 이용한 목포관광 홍보’도 추진된다. 전국을 누비고 있는 목포 관내 관광 버스에 관광 목포를 알리는 래핑 광고를 실어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목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광욕구를 유발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멋과 맛의 도시 목포에서 추억을 담아가세요 ▲해양관광도시 목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포 해양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등 광고문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명호 시 관광문화국장은 “목포의 역사성과 미래지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조형물을 설치,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아울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나갈 방침”이라며 “목포 관광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2월 관광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디자인 개발 등 광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함평 용천사 백양꽃 활짝 최근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인근 꽃무릇 공원에 ‘백양꽃’이 활짝 피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잎과 꽃이 만나지 않는 상사화의 일종인 백양꽃은 백양사, 내장산 등지에서 매우 드물게 자라는 한국 특산 식물이다. 〈함평군 제공〉

토지정보 ‘한눈에’

구례군 통합도면 배포

구례군은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토지정보통합도’를 제작해 관내 전 마을과 읍·면사무소, 농협, 축협 등에 무료로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한 통합도면은 지난 1910년 지적도 작성 이후 100년 만에 새롭게 제작됐으며, 군 전체 토지인 지적도와 임야도가 합쳐 표기돼 있다. 또 새주소 사업을 통해 이름을 얻은 도로명들이 기재돼 있으며,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도면도 들어있다.

이에 따라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지역에서 전체 도형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져 주민들에게 시간·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당국이나 유관기관도 정확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고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강진 군동농협 간부 2명 업무정지

마른 김 사업 부실 … 조합장은 사퇴 밝혀

강진 군동농협의 마른김 경제사업 부실보도(본보 8월20일자)와 관련,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은 전 모(42) 상무와 김 모(53) 과장의 업무가 정지되고 현 김모 조합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군동농협은 지난 2008년 마른김 42억원어치를 확보해 지역내 A맛김 가공업체에 전량 납품을 추진하면서 A업체가 지정한 B업체로부터 마른김을 매입해왔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판로확보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동농협은 마른김 매입과정에서 통상 거래가격보다 속당 800원~1천원 높은 가격에 사들여 농협과 업체간 유착도 입쌀에 올랐다.

한편 이달초 실시된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는 42억원어치의 물량 가운데 일부는 납품하고 38억원어치가 재고로 남아 농협창고에 보관하던 중 B업체가 덜 채워지거나 빈 박스를 들여오는 수법으로 절반에 가까운 약 19억원 상당의 물량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52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한때 연매출이 100억원에 달했던 B업체는 현재 문을 닫았으나, 3개월째 밀린 직원들의 임금과 사채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6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업체 대표 김모(42)씨는 잠적한 상태이며, 구매담당 김모씨 등 2명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동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위치에 있는 임직원에 대한 경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철희기자 choul@

보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최첨단 악취방지 공법 도입

보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최첨단 악취방지 공법이 도입된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 처리장의 악취제거를 위해 사업비 5억 700여만원을 투입해 기존 악취방지시설에 신공법의 탈취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보성지역 축산농가에서 하루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50~70t으로 나타났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전남지역 사계절 전지훈련장 각광

7~8월에도 역도 대표팀 등 유치 15억 경제효과

전남도가 사계절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8월 2개월간 역도와 탁구 국가대표팀 등 총 145개팀 연원 2만7천328명이 전남지역에서 하계전지훈련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는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남도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1천337개팀, 연인원 46만6천397명을 유치해 256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전남지역이 사계절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겨울철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동계전지훈련단을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또 도와 일선 시·군이 경기 연맹단체와 팀 등과 자매결연 추진 등을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남도는 최적의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총 72개 사업 635억원에 이르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전지훈련 참가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목적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힐트레이닝 연습장 등 핵심 스포츠 인프라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정훈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2010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겨냥, 골프·승마·요트 등 레저스포츠 육성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중앙고속 - 곡성 옥과 용두마을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식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지난 4일 용두마을 회관에서 김상호 중앙고속대표와 임직원, 이영기 농협곡성군지부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중앙고속과 용두마을간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이를 계기로 중앙고속은 도·농 교류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사업을 통해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자매마을 농산물 공동구매와 농번기 일손돕기 참여 등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고속은 이날 용두마을 회관에 에어컨과 발전기금 등을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친환경 조생양파 육묘파종 전자동화시설 준공

고흥 거금도 농협

고흥군은 지난 3일 금산면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금도 농협 친환경 조생양파 육묘파종 전자동화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금산면 석정리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창고·관리실·작업장 등을 구축한 이 시설은 650㎡의 육묘 파종장과 파종기 3대, 액비제조기 2기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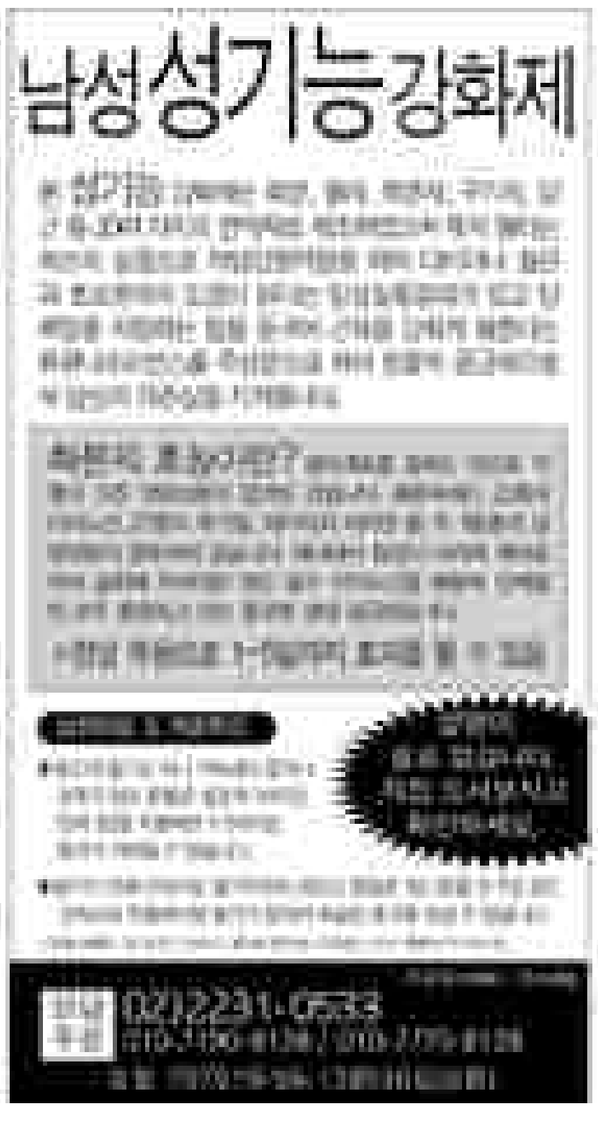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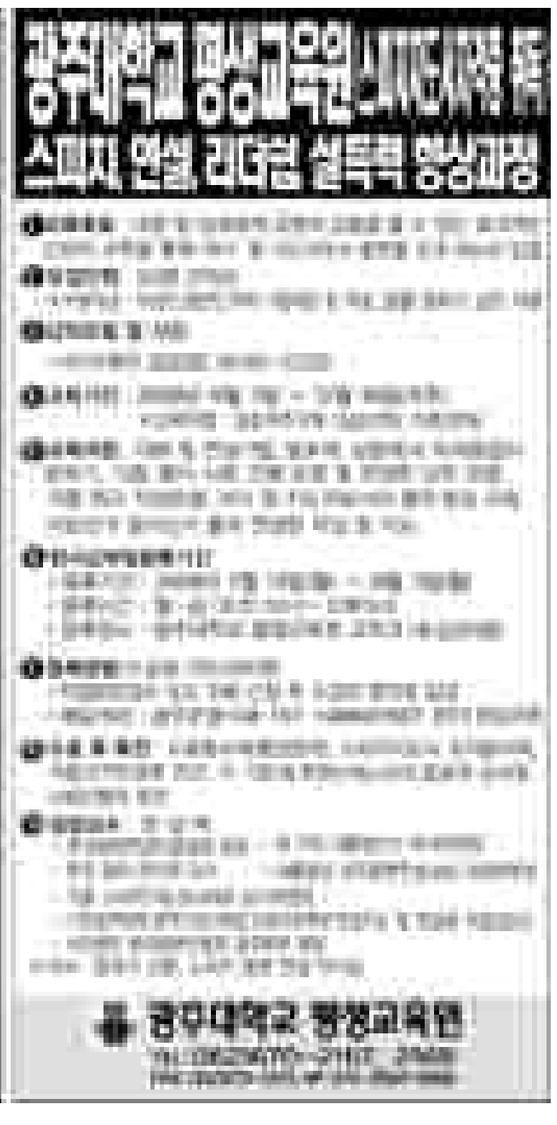
오는 11일까지 6천800㎖의 양파종자를 기계 파종해 233ha의 본답에 정식할 모종을 공급할 계획이다.

10a당 양파종자 파종비용은 종자대·파종비를 포함해 25만원선이며, 트레이 자동 육묘파종으로 3~4일간 최아기간을 거쳐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농가에서는 노상에서 50여 일간의 육묘기간을 거쳐 10월 초순경 본답에 정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생양파의 재배방법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영농비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2천ℓ 규모의 액비제조 시설장비를 통해 생산되는 액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어 화학비료 사용감소 등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산면은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돼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407ha에서 2천400t의 양파를 생산해 연간 6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